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3년 8월

선교편지 제 166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선교를 위하여 쓰게 하심은 물론이고, 미처 쓰임 받으리라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깊이 묻혀 있던 조그만 능력까지도 모두 소환하여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보다, 책상에 앉아 혼자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극적인 성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선교지에서 내 편한 성격을 따라 한가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담대하게 누구든지 만나고, 어디든지 찾아가고,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일에 도전을 하게 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모습을 보며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나 하고, 내 자신이 놀랄 때도 있습니다.

수년 전 디고스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자체 교회는 물론이고, 아무런 사역의 근거지가 없었던 까닭에 단독으로 각 학교를 방문하고, 교도소를 방문하고, 마을을 방문하여 가능하면 많은 현지인들과 접촉점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외적으로 다바오 델 수르 (Davao del Sur) 주지사, 디고스 시장, 마을 바랑가이 (Barangay) 책임자들을 만나 큰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내적으로는 그 무엇보다도 효과적으로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찬양팀'이 없어서 늘 아쉬웠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운율과 가사를 통하여 복음을 나누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아쉬운 데로 찬양 인도를 위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제 아내가 일주일 내내 새로운 율동과 새로운 '현지어' 찬양을 연습해서 대중을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말씀 준비 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당시 제자 훈련반에 소속된 학생들 중에서 음악과 율동에 달란트가 있고, 기꺼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10여명을 선발하여 찬양팀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율동은 제 아내가, 음악의 기본은 제가 담당하여 매주 열심히 연습을 하였습니다. 율동만큼은 뽀뽀한 제 아내보다 훨씬 기대 이상으로 아름답게 준비가 되었는데, 찬양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 학교 교과 과정에는 '음악'을 별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즉, 악보를 보고 찬양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소리가 귀에 들려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노래를 부릅니다. 학생들 개인적으로는 가수 못지않게 화려한 에드립 (Adlib)이 동반된 찬양을 부르지만, 함께 부를 때는 도리어 그 에드립이 서로를 방해하는 불협 화음으로 들려지곤 했습니다. 악보대로 부르면 좋겠는데, 선천적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 노래를 부르지는 않는 까닭에, 한 곡을 완성하려면 많은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많은 시행착오와 연습을 통해 학생들의 찬양과 율동이 사역과 함께 하게 됨으로, 지금까지 저희 부부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때까지도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자체 찬양팀이 없어서 늘 아쉬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디고스 예일교회'가 건축되고, 꿈에도 소망했던 교회를 통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비싼 음향 장비와 악기들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청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악기만 있으면 바로 찬양이 연주될 줄 알았는데, 자리만 차지할 뿐 예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찬양팀을 구성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20여명이 넘는 청년들이 찬양팀으로 섬기기를 자원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마다 악기 연주를 위한 그룹 레슨이 시작되었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개인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 때부터 제 경력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인 없는 '음악 교사' 역할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릴 적에 '바이엘'을 겨우 마치고 '체르니'를 시작할 즈음에 포기했던 피아노 수준과 학창 시절에 배웠던 통기타 수준으로 찬양팀에게 음악 이론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함께 고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깊이 묻혀진 조그만 달란트까지 탈탈 털어 동원할 정도로 선교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스케일', '음정', '코드', '다이아토닉'까지 악기를 연주하기 위한 기본을 가르치고, 찬양 한 곡을 선정하여 외워질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드럼' 만큼은 전혀 지식이 없어서, 타 교회에서 드럼 연주를 하는 청년을 어렵게 초빙하여 별도로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는지, 개인 연습 시간은 화요일과 목요일로 정하였는데, 결국에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악기 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침내 찬양팀의 모습을 서서히 갖추게 되어, 예배 중에 찬양팀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벌써 디고스 예일교회가 창립한지 8년이 되었고, 아팔라야 예일교회는 3년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악기를 배워 찬양팀으로 봉사를 하기 원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서, 매년 학교 방학과 함께 '찬양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일 거의 3시간 정도를 연습하는데, 동네 어린이들도 열심히 구경하고 점심을 같이 먹는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힘들게 음악 이론을 가르치고, 연습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악기 연주 실력이 월등한 기존의 찬양 팀원들이 새로운 팀원들을 가르치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8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변화이며, 또한 축복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하여 최선을 다하여 올려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3:15)



 디고스 예일교회의 '셔윈 (Sherwin)' 형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장'이라고 불리는 콩팥 기능이 악화되어, 병을 인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만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남겨 두고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5년전 디고스 예일교회를 통하여 신앙 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셔윈' 형제는, 비록 교회의 일에 앞장을 서는 교인은 아니었지만, 예배 만큼은 부인과 딸과 함께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야말로 믿을 만한 교인이었습니다. 심방을 가서 고통 가운데 맥없이 누워 있는 셔윈 형제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로서는 도저히 위로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으로서 도저히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셔윈' 형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많은 고민을 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위로하며 '현금'을 셔윈 형제의 손에 쥐어 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힘 없던 눈동자가 살아나고, 현금을 놓치지 않을 것처럼 손에 힘이 모아집니다. 가족을 책임진 가장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들은 지 이틀만에 사랑하는 가족과 작별을 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인 까닭에 필리핀의 장례 문화는 가톨릭 전통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인들의 장례식에 참여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가톨릭 장례가 이런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관을 집으로 옮겨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상이 있고, 양쪽에는 촛불을 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관 앞에 고인이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밥은 물론이고 과일과 간식까지 놓여 있습니다. 마치 유교에서 볼 수 있는 망자를 위한 상차림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3일장이 아닌 9일 동안의 장례 일정이 시작됩니다. 가톨릭에서 장례에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으나, 주변 가톨릭 신자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죽은 자의 영혼이 9일 동안 집에 머물고 있고, 이를 위해 '9일간의 기도' (Novena Prayer)를 성모 마리아에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9일 동안 매일 밤 지인들의 조문을 받고 고인의 집에서 함께 미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지인들의 장례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했던 기독교인들의 장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9일간의 미사 중에서 하루, 이를 밤을 기독교 교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외의 날들은 가톨릭 방식으로 미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들의 오래된 전통을 무시하고,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 방식의 장례 절차와 예배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은 고인의 가족들의 신앙과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 가운데 교회가 협조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장례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셔윈' 형제의 장례는 기존의 가톨릭 전통의 장례와 사뭇 달랐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셔윈' 부인은 교회에 장례 절차를 먼저 문의하였고, 자신의 가톨릭 장례 전통이 아닌 기독교 장례 절차를 따르겠다고 먼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당시 뿐만 아니라, 아직도 논쟁 거리가 되고 있는 '조상 제사'의 문제와 같이, 이 곳에서도 전통적인 가톨릭 장례를 따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하게 신앙 생활을 했던 '셔윈' 형제의 부인이 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 온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기독교인의 장례식에 참여해 보았지만, 아직까지 기독교 만의 장례식은 본 적이 없었고, 디고스 예일 교회로서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최대한 유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모범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관 앞에 제사상을 놓지 않고, 교회에서 준비한 조화를 배치 했습니다. 그리고 9일 동안, 성모 마리아가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장례식에 참여한 친지와 이웃들에게 전했습니다. 고인의 임종 예배부터, 입관 예배, 조문을 받으며 드리는 9번의 예배, 장지로 향하기 전 교회에서 드린 발인 예배, 그리고 하관 예배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힘을 다하여 유족을 위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셔윈' 형제의 유족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후 5:1)**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교회 /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디고스 지역의 세 번째 교회 개척을 위하여
3.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214-17 45 th Drive, Bayside, NY 11361

